

第 73 回

3月10日, 成功



- 우리協會는 지난 3...○
- 月10日 協會研究室에...○
- 서 第73回 發明敎堂을...○
- 開催했다. 每月 둘째...○
- 土曜日 午後 1時에...○
- 開催되는 發明敎堂은...○
- 이달에도 1백여명이...○
- 出席하여 講演을 이루...○
- 었다. 이날 發明敎堂...○
- 에서는 (주)한중합무...○

再生不可 1회용주사기 發明人

(주)한중합무역 金圭桓 사장

범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AIDS의 심각성이 극대화 되는 것을 보고 이의 전염을 최소화시키자는 명분아래 재생이 불가능한 1회용주사기를 發明한 (주)한중합무역의 金圭桓 사장.

그는 몇번의 실패로 좌절하기도 했으나, '85뉴런베르크전시회에서의 수상을 계기로 현재는 미국 일본 등에 이 發明品을 수출할 계획이다.

어린시절부터 시계를 비롯하여 여러 기계부품들의 수리를 도맡아했다던 金사장은 비록 전공은 이공계통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무역학을 했으나, 평소 發明에 대한 관심은 그 누구보다도 컸다.

金사장은「재생이 불가능한 1회용주사기」의 發明동기를 이렇게 밝혔다.

『연간 3~4개월을 외국에서 보내는 동안 중학생이나 심지어는 국민학생까지도 AIDS에 감염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AIDS나 간염같은 병이 주사기를 통해 전염되는 확률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재생이 불가능한 1회용주사기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金사장은 재생이 불가능한 1회용주사기를 發明한 후, 기쁨은 커녕 오히려 큰 실망을 하게되었다.

외국에서 그것도 1980년에 이미 出願이 된 것이다. 金사장은 크게 낙담하여 포기를 했다.

『그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전 생각을 바꿨습니다. 다시 시작한거죠.』

金사장은 여러명의 의사들을 만나 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주사기의 문제점을 알아냈다.

그가 만든 주사기는 주사침과 주사통의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걸림장치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주사 도중 주사를 멈추게 되면 피스톤 헤드 중앙에 장치된 핀이 후퇴하여 주사통 및 피스톤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 金사장은 이 發明品을 더욱 보완하여 다양한 모델을 개발, 일본과 미국에 수출할 계획이며 컴퓨터회사도 함께 경영하는 등 發明人と 경영인으로서 1인2역을 해내느라 남보다 2배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다. (♣)

發明教室

事例 登 發表

- 伊 藤 圭 昭 社 長 과 ○
- 신아이템상사 姜信協 ○
- 社 長 의 成 功 事 例 發 表 ○
- 에 대 해 洪 載 日 講 理 ○
- 士 의 「 產 業 財 產 權 制 ○
- 度 」 에 대 한 講 의 가 ○
- 있었다. 두 發 明 人 의 ○
- 成 功 事 例 를 引 用 하 ○
- 紹 介 한 다. ○
- (伊 藤 圭 昭 記) ○



自動 電壓조절 전원플럭 發明人

신아이템상사 姜 信協 사장

신아이템상사 姜 信協 사장이 發明한 자동 전압 조절되는 전원플럭은 100V와 220V겸용제품의 전압에 의한 고장발생을 막아주는 發明品이다.

姜사장은 이 發明品으로 3개의 特許를 획득하여 국내에서 시판은 물론, 외국으로 수출하고있다.

(주)金星社에 입사하여 동대문 센터에서 근무하던姜사장은 100V와 220V겸용제품의 고장 원인중 대부분이 전압에 의한 것임을 알고 원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원코드는 220V로 되어있고 플럭단자에 아답터를 사용하는 것과 전압

조절용 스위치가 내장되어있어 소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없음이 원인이었다.

姜사장은 이의 개선책을 강구, 트랜스의 스위치선을 플럭단자의 아답터로 조절하도록 하였고 그 후 아답터도 필요없는 제2의 플럭을 開發하는데 성공하였다.

『發明을 하는데 따른 어려움보다 기업화추진에 더 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姜사장은 각처에서 양도생산에 대한 제의가 들어왔으나, 이들을 모두 거절하고 기업화를 추진, 2번이나 동업에 실패하였다.

그는 최종단계로써 양도를 결심했고 우신전자와 자신이 근무했던 (주)금성사에 發明品을 양도, 국내시판은 물론 수출까지 하게되었다.

한편,姜사장은 누워서 스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리모콘을 發明하는 등 수많은 發明品을 선보이고있다.

『잠이 들기 직전 불을 끄려면 다시 일어나야하는 불편함이 있죠. 누워서 불을 끌 수는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發明하게 됐습니다.』

姜사장이 發明한 리모콘은 스위치 끈의 길이를 조절하여 평상시엔 짧고 저녁엔 길게 늘어뜨려 누워서도 불을 끌 수 있게 만들어졌다.

항상 생활 속에서 發明의 소재를 찾고 아무리 작은아이템도 그냥 넘기지 않는다는姜사장은 현재 다수의 特許를 양도교섭 중에 있으며, 한달에 1~2건의 特許出願을 하는 등 왕성한 發明의욕을 보여주고 있다. (♣)